

# 담배 博物誌 『蔦錄』을 통해 본 담배의 의학문화적 특징

박상영,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 Enroku

Park Sangyoung,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When *Ojuyeonmunjangjunsan'go*, which we may call the ocean of data in Chosun Dynasty, refers to the matter related tobacco, it often quotes from *Enroku*. *Enroku* is a technical book of tobacco in Japan. It not only often quotes from *Jibongyuseol*, an encyclopedia published in Chosun Dynasty, but also embodies literary works related tobacco written by Koreans. We are so interested, because even the first literary work related tobacco written by a Korean is included in it. But on the ground of foreign book, Koreans have not made a deep study on it. So, In this treatise We will picture a broad outline of *Enroku*, and introduce literary works related tobacco written by Koreans in it. It would be little aid for the deep study on tobacco itself and on literary works related tobacco in Korea.

key words : *Ojuyeonmunjangjunsan'go*, *Enroku*, tobacco

## I. 서론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에 걸쳐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미미한 사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천착하고 기록하여 저술하는 풍토가 유행했다. 이는 중국의 명·청 시기에 유행한 小品集과 방대한 叢書類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으로,<sup>1)</sup> 도덕적 원리나 문학적 감수 이외에 세세한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전달’이 한문향유의 주요역할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조선후기의 이른바 ‘정보의 바다’라 할 수 있는 방대한 서적, 『五洲衍文長箋散稿』가 나올 수 있었다. 『五洲衍文長箋

散稿』<sup>2)</sup>는, 비유해서 말하자면 ‘술가락에서 포크레인까지’, 딱히 무어라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다 담으려 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정보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인용서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그 연구가 깊고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1)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양상』,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3.

明清 小品 및 明清의 叢書類가 조선후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참조.

2) 李圭景, 古典刊行會 編, 『五洲衍文長箋散稿』, 1959.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총 60권의 방대한 저작으로 내용상 분류 없이 배열되어 있었다. 이것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7년 번역작업을 위해 『星湖德說類選』의 분류방식을 따라 내용분류를 하였고, 이후 번역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사편’과 ‘경사편’ 이외의 분류에 대해서는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번역에 차질이 생긴 가장 큰 이유로, 원문 자체의 교감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2001년부터 까지 2005년간 교감작업을 하였으며 현재 그 결과물을 웹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상은 민족문화추진회 이정원 전문위원의 전언에 의함.

□ 접수 ▶ 2007년 2월 18일 수정 ▶ 2007년 4월 3일 채택 ▶ 2007년 4월 16일

□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2 Fax 042-863-9463 E-mail answer@kiom.re.kr

본고에서는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담배에 관한 언급을 할 때, 주요인용서로 꼽고 있는 『蔞錄』이라는 책을 통하여 조선으로 담배가 유입된 경위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의학문화적 차원에서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 II. 본 론

### 1. 『蔞錄』의 내용 및 특징

『蔞錄』이라는 서적이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다음 사항들로 인해서이다. 첫째, 담배 관련 서적의 거擘으로 꼽히지만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거나 번역된 바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여타 담배 관련 서적과는 달리 의사의 저술이라는 점이다.<sup>3)</sup> 때문에 「主治」·「禁忌」·「解煙毒」 등 의료에 관련된 章을 따로 두고 있다. 셋째, 이 책의 실제 간행연도가 1809년(文化 6, 純祖 9)이며 『五洲衍文長箋散稿』의 작가 李圭景이 1856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읽히고 또 주요인용서로 뽑혔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후기의 서적유통이 얼마나 급속히, 그리고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졌는가를 증험하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蔞錄』의 대표적인 판본은 일본의 內閣文庫本이다. 內閣文庫는 6종의 『蔞錄』을 소장하고 있는데, 모두 上中下 3권 3책본이며 10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유일한 듯 하나 『醒世諭言』 등과 합본되어 있으며 1912년에 발행된 판본으로 역시 3권 10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순서에 따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序 : 小田泰(1747-1801)가 썼다.

蔞錄考例 : 大槻玄澤가 작성했으며 『蔞錄』의 自序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引用書目錄 : 동서양의 인용서 서목과 인용서의 저자에 대해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책으로는 『芝峯類說』이 소개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저자에 대해서는 ‘韓人撰者未

詳’이라 되어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芝峯類說』은 조선후기의 유명한 실학자인 李睟光(1563~1628)의 저술이다.

卷之上

原始第一 : 당시 유행했던 담배의 전래에 관한 일본중국 한국 그리고 서양의 설들을 모아놓았다. 大槻玄澤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으로 담배가 유입되었다는 설, 明末에 서양인이 중국으로 담배를 가져갔다는 설, 베트남 북부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는 설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別名第二 : 여러 책들에 산견되는 담배의 별명들을 들고 있다.

種藝第三 : 담배를 심고 제배하는 방식에 대해 적고 있다.

土宜第四 : 土宜는 그 땅에 적합한 농작물, 그 땅의 산물, 토산 등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그러한 사항에 관한 서술을 모아놓았다.

修造第五 : 담뱃잎의 처리법에 대한 서술을 모아놓았다.

卷之中

主治第六 : 당시 서양과 중국한국일본 등에서 담배의 의약적인 효능으로 여겨진 것과 그것의 실제적인 응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禁忌第七 : 담배가 기호품보다는 藥劑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던 시대의 문헌으로부터 ‘담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병과 증세’를 인용하였다.

解煙毒第八 : 담배 중독을 푸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什器第九 : 담배 관련 기구에 대해 설명하였다.

卷之下

雅賞第十 : 담배와 관련된 문학작품을 수록하였다.

附考

餘考

附圖 : 圖說을 모아놓았다. 도설은 『蔞錄』이라는 책에 특이성을 더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蔞錄』은 1796년 탈고를 하고 1802년 출판을 시도하였으나 圖說에 외국의 담배 관련 기구가 다량 소개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출판을 금지당했다가 1809에 가서야 자가 출판으로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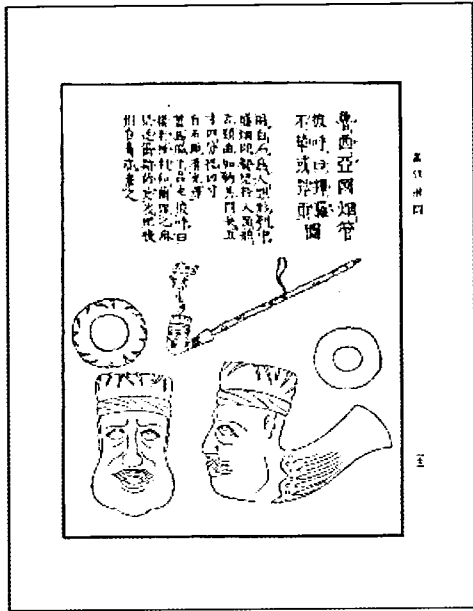
追譯增補數件

이상의 간략한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蔞錄』은 담배의 의학적인 공능 뿐 아니라, 담배의 전래, 제배법, 가공법, 담배관련 기구, 담배 관련 문학작품 등 담배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애쓴 책이다.<sup>4)</sup> 특히 각

3) 大槻玄澤(1757-1827) : 에도(江戸) 시대 후기의 蘭學者. 名은 茂賢, 號는 磐水이다. 『解體新書』의 번역자로 유명한 杉田玄白·前野良澤의 제자이기도 하다. ‘玄澤’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두 스승에게서 한 글자씩을 받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4) 안대회, 「이옥(李錡)의 저술 『담배의 경전(煙經)』의 가치」, 『문헌과 해석』, 2003;24.

章마다 ‘本朝’ (일본), ‘震旦’ (중국을 의미하나 한국 자료도 포함시킴), ‘西洋’ 등의 諸家の 설을 인용하고 있어 동아시아 뿐 아니라 동서양 전반의 담배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림 1〕 『蔦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중에서 「魯西亞國烟管」

그림은 『蔦錄』에 실린 도설 중 러시아 파이프에 대한 것이다. 『蔦錄』에는 이와 같은 외국의 담배관련 기구들에 관한 圖說을 다량 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판이 불허되기도 하였다.

## 2. 『蔦錄』의 저작배경 및 저작방향

다소 장황하기는 하나 『蔦錄』의 저작배경과 저작방향 등을 이해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 자료를 인용하기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15, 6년 전, 나는 한두 同志와 네덜란드 서적을 강독하였다. 당시 우연히 Dodonaes·Chomel·Hubner·Lemery·Woyt 등이 지은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실린 荅跋菰(담배)의 圖說이 상세하면서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관련 종합서인 李鈺(1760-1815)의 작품 『煙經』이 발굴되어 소개된 바 있다. 아쉬운 바는 전체가 25장이라는 적은 분량이라는 점과 전문적으로 의학적인 부분까지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흡연문화에 관해 이 책보다 상세한 소개를 한 책이 없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책은 1810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1809년에 간행된 『蔦錄』과는 내용적인 면에서 상호교섭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옥은 담배를 의인화한 「南靈傳」과 법당에서 담배를 피운 사연을 소재로 한 「煙經」이라는 작품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들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홀로 三子<sup>5)</sup>의 설을 번역하고, Chomel의 책에 실린 荅跋菰草와 그 지방 사람들의 吃煙圖, 그리고 내가 평소 보았던 바의 煙具의 諸圖를 들어 編中에 수록하고 編의 뒤에는 일본중국서양의 諸說을 부가하여 分類 및 輯錄을 하고, 『蔦錄』이라 이름하여 잊어버릴 것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蔦은 荅跋菰(담배)이다. 荅跋菰은 원래 작은 섬의 이름<sup>6)</sup>으로 아메리카 주에 속해 있다. 그 땅에 한 종의 기이한 풀이 있는데 그 땅 사람들은 百杜摸<sup>7)</sup>라고 부른다. 이것이 荅跋菰草의 원칭이라 한다.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옛날에 이것이 없다가 전하여져 天正(1573-1592)·慶長(1596-1615) 연간에 처음으로 오랑캐의 배에서 씨앗을 얻어 나가사키 사쿠라바마(櫻馬場)에 심었다. 이 이후로 비로소 사방에 전파되었다. 지금은 모든 州에 다 있으니, 집집마다 쌓아두고 사람들이 좋아하여 日用的 빠뜨릴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때문에 선배들의 책에서 변론한 것이 적지가 않다. 예를 들어 林道春의 『羅山文集』·林春齋의 『鶯峰林學士文集』·具原益軒의 『大和本草』·伊藤東厓의 『秉燭談』·具原損軒의 『大和事始』·稻生若水の 『結髮居別集』·名古屋開甫子の 『食物本草』·香月牛山の 『卷懷食鏡』과 『老人養草』·沙門 梅國의 『櫻陰腐談』·神田玄泉의 『食物知新』·『一本堂藥撰』·野千里의 『本朝食鑑』·寺島良安의 『和漢三才圖會』·六如上人の 『葛原詩話』·西川鈞淵의 『長崎夜話』가 그것들이다. 또 震軒 向井氏が 일본과 중국의 여러 설을 모아 『煙草考』一編을 저술하자 그 설이 비로소 갖추어졌다. 못 서적들은 거개 『本草洞詮』에 귀속되니 모두 明末과 淸朝의 諸家가 쓴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중국에도 옛날에는 이것(담배)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네덜란드인이 우리나라에 入貢하러 오면 모두 그것을 좋아하였고 荅跋菰라 불렀으니, 그것이 저들로부터 나온 것임은 진실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殊方の 異言(네덜란드어)으로 되어 있어 살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다행히 青木昆陽先生の 餘教를 받들어 蘭學에 종사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비로소 그 一斑을 엿볼 수 있었다. 연후에 이른바 殊方の 異言에 환히 밝아졌다. 지금 생각건대 이러한 책은 비록 一時 잊어버릴 것을 대비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로 장래에 전하

5) 宇賀田爲吉, 『煙草文化誌』, 東峰書房, 昭和56:32.

Hubner·Lemery·Woyt의 담배에 관한 서적을 가리킨다.

6) 토바고 섬(Tobago)을 가리킨다. 토바고 섬은 영국령이었으나 1962년 독립하여 1976년에 공화국이 된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에 속한다.

7) 宇賀田爲吉, 상계서, p.33.

petum 혹은 petun. 브라질 원주민어로 담배를 가리킨다.

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서양의 여러 설을 모은 것에 있어서는 애오라지 선배들의 여러 서적보다 더한 것이 있어서, 낱아빠진 빗자루를千金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듯 소중히 여겨 보관한 지 오래였다. 근래에 塾生들이 자주 刊布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다시금 고쳐서 주었다. 이 나라 선배들 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文字가 비루하고 촌스러움에 가까울지라도 감히 마음대로 고치지 않았으니, 또한 옛 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뜻이다.<sup>8)</sup>

大槻玄澤이 1796년(寬政 8, 正祖 20)에 작성한 「蔞錄考例」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그가 그의 몇몇 同志와 함께 네덜란드의 本草書を 강독하는 가운데 그곳에 담배에 관한 언급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여겨 발췌를 한 것에서 발단되었다. 서양에서 내놓은 담배에 관한 정보에 경도된 것은 담배 자체가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점도 감안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解體新書』 번역을 통해 서양의술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 서양의 본초서에 대한 경도를 견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sup>9)</sup>

이는 “서양의 여러 설을 모은 것에 있어서는 애오라지

선배들의 여러 서적보다 더한 것이 있어서, 낱아빠진 빗자루를千金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듯 소중히 여겨 보관한 지 오래였다”는 저자의 말로 감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大槻玄澤은 서양 본초서에서 뽑은 담배에 관한 기사를 채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중국 및 한국의 담배에 관한 기사들을 뽑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책 가운데에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나 담배와 관련된 기구 등의 圖說을 삽입하여 독자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결국 이 책은 동서양의 담배 관련 정보 가운데 긴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도설과 함께 모두 실으려 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초고를 열람하고 서문을 썼던 小田泰가 적절하게 언급한 바 있다.

담배를 차에 비교하자면 비록 세상에는 뒤늦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 쓰임은 매한가지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한국 포함)의 문 서적들에는 차에 대해서는 자세하지만 담배에 대해서는 조략하니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담배는 北海의 작은 섬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책에 보이는 것도 네덜란드에서 비롯하니, 땅이 멀리 떨어져 있고 문자가 서로 같지 않아 고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세상에 유행한 지 이미 200년이 되었는에도 그것에 대해 증명해 줄 수 있는 책 한권이 없는 것이다.……나는 당시 동쪽으로 와서 선생(大槻玄沢)과 잘 지내게 되어 누차 그 모임에 들어가 네덜란드의 의서를 배웠다. 어느날 선생은 나에게 『蔞錄』을 보여주며 상의하였다. “나는 근래에 네덜란드 서적을 강독하는 여가에 物類 가운데 저쪽에서 나서 우리에게 쓰이는 것을 뽑아서 번역하여 『六物新志』(그림2참조)와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六物新志』는 이미 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책을 간행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너무 자질한 내용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책을 받아서 읽어보니 그 논의는 다만 네덜란드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우주 사이에 담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멀리 상고하고 널리 찾아서 빠트린 것이 없었으니, 性味忌宜와 品位美惡은 물론이고 씨 뿌리고 모종하고 배양하는 법, 잎을 따서 말리는 법, 그리고 詩文과 器械의 圖會까지 모두 찬연히 갖추어져 있었다. 이에 나는 벌떡 일어나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옛날의 이른바 立言不朽라는 것이 크기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오직 이로운가 아닌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진정 후세의 輕俊之士와 華藻術가 글만 써대고 아무런 배움이 없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담배가 없는 나라가 없으니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이로우며 주는 것이 어찌 자질하다 하겠습니까? 행여 ‘담배는 살면서 늘 사용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것인데, 글로 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겠

8) 大槻玄澤, 『蔞錄』 「蔞錄考例」,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2.

先是十六年, 余與一二同志, 講究蘭書. 時偶閱獨度奴奴, 創墨兒吸蒲涅兒列墨力伊伍乙志諸子所著書, 其載荅跋菰之圖說, 詳且備矣. 乃欣欣然喜謂: “是豈易得乎?” 因私繙譯三子之說, 而學創墨兒書所載荅跋菰草, 及其土人吃煙圖, 與余平昔所日擊, 煙具諸圖, 收之編中, 編後附和漢西洋諸說, 分類輯錄, 命曰, 『蔞錄』, 以備遺忘. 蓋荷, 荷跋菰也. 荷跋菰, 本一小島之名, 屬亞墨利加洲, 其地產一種奇卉, 土人呼曰百杜摸, 是荷跋菰草之原稱也云. 我邦古昔, 亡有此物. 相傳, 天正慶長間, 始得種子番舶, 而植之長岐櫻馬場. 自是闕后, 遂傳播於四方. 今也, 諸州悉有, 乃家蓄人嗜, 以爲日用不可闕焉之物矣. 是以先輩書中, 辨論之, 不爲艱也. 如林道春『羅山文集』·林春齋『蔞峰林學上文集』·具原益軒『大和本草』·伊藤東厓『秉燭談』·具原損軒『大和事始』·稻生若水『結髦居別集』·名古屋關甫子『食物本草』·香月牛山『卷懷食鏡』·『老人養草』·沙門梅國『櫻陰腐談』·神田玄泉『食物知新』·『一本堂藥撰』·野千里『本朝食鑑』·寺島良安『和漢三才圖會』·六如上人『葛原詩話』·西川釣淵『長崎夜話』, 是也. 又有震軒向井氏者, 纂和漢諸說, 著『煙草考』一編, 其說始具矣. 蓋諸書, 率以『本草洞詮』爲歸, 皆明季及清朝諸家所述也. 由是觀之, 漢土, 亦古昔亡有此物, 可以知也. 又視和蘭人入貢于我邦者, 亦皆嗜之, 而呼曰荷跋菰, 則其始出自彼, 固不容疑, 而殊方異言, 不可得而考焉. 吾僂幸奉青木昆陽先生餘教, 從事于蘭學, 研究之久, 遂窺其一斑, 然後所謂殊邦異言者, 瞭然以明. 今得考如此書, 雖一是備遺忘者, 實不足以傳之將來, 然其於采摭西洋諸說者, 聊有加於先輩諸書乎, 乃弊幣千金, 珍而藏之久矣. 頃日, 塾生屢乞刊布之, 不已, 更加是正, 授焉, 而至所引用此邦先輩書, 則雖文字或近鄙俚者, 不敢妄改焉, 亦存舊之意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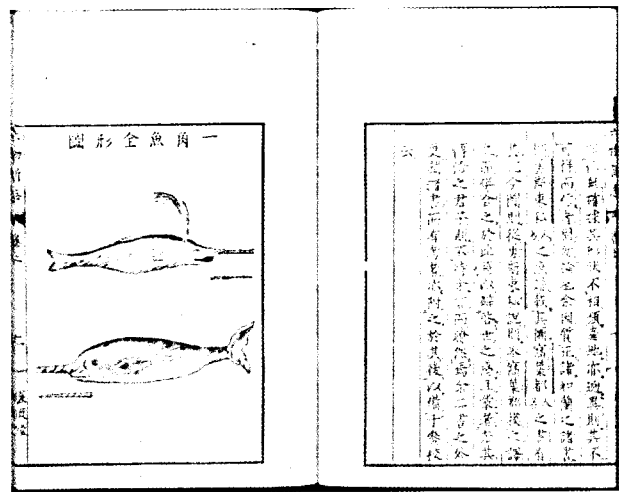
9) 富士川游 著, 朴旻, 李相權 共譯, 『日本醫學史』, 法仁文化社, 2006:546.

大槻玄澤은 10년 동안 원고를 세 번이나 고쳐가며 『解體新書』를 고쳐서 『重訂解體新書』를 완성하였다.

지만, 근본을 캐어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다만 비듬·때·쭉정·이겨를 빚어서 만들어놓았을 뿐입니다.<sup>10)</sup> 術이나 學의 경우라면 造詣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앞의 현인을 잇고 뒷사람을 啓導한다면 다시 훗날에 選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sup>11)</sup>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담배라는 자잘한 내용을 책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것 같다. 그렇지만 ‘茶煙’이라는 성어에서도 확인되듯 차와 함께 거론되며 일상에서 늘 애용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에 관해서는 전문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전문서가 중요서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것에 반해<sup>12)</sup> 담배에 대해서는 전문서적이 없어 구체적인 사항을 상고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을 저술한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小泰田은 『薦錄』의 특성으로 “우주 사이에 담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멀리 상고하고 널리 찾아서 빠트린 것이 없”으며 “담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멀리 상고하고 널리 찾아서 빠트린 것이 없는 것”임을 말하였다. 이러한 자잘한 주제를 입언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立言不朽라는 것이 크기와는 무관하며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주제의 친근함에 대한 세상의 비판에 대해 변호한 것이다. 담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빠트린 것 없이 남기려고 한 저자의 태도를 보노라면, 『和漢三才圖會』에서 인용했던 ‘세상 모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해야만 사람을 알 수 있고 그래야만 병을 다스릴 수 있음’을 강변한 劉完素(?-1200)의 말이 연상된다.<sup>13)</sup> 『和漢三才圖會』는 『薦錄』의 주요 인용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燕巖 朴趾源(1737-1805)의 주변 인물들이 즐겨 읽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名物度數之學에 깊이 침잠했던 靑莊館 李德懋(1741-1793)와 그의 손자인 이규경이 그들의 글에서 자주 인용하였고, 醫書에서는 徐有奭(1764-1845)의 『仁濟志』의 주요인용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에서 12책으로 영인출판된 바 있다. 『和漢三才圖會』가 만물에 대한 백과사전을 표방한 것이 라면, 『薦錄』은 입상에 필요한 정보 뿐 아니라 담배에 관련된 모든 이치를 수록하려 한 담배에 대한 사전이라고 말해도 손색 없을 것이다.



[그림 2] 『六物新志』 중에서

六物이란 一角, 泊夫藍(사프란), 肉豆蔻(육두구), 木乃伊(미이라), 噎浦里哥(에부리코, 버섯의 일종), 人魚를 가리킨다. 이 여섯 가지는 당시 靈藥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림은 一角에 관한 것이다.

### 3. 『薦錄』에 보이는 우리나라 관련 작품

우리나라에 담배 유입 경로에 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스승이신 和氣法眼仲安 先生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劉完素의 말에 『醫術을 業으로 삼는다면 위로는 天文을 알고, 아래로는 地理를 알고, 그 사이로는 人事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명확히 한 연후에 비로소 사람의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눈이 어두우면서 밤에 노닐려 하고 다리가 없으면서 산야를 登涉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라 했다.” [兩丈和氣法安仲安謂予曰: “劉完素有言: “欲爲醫者, 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三者俱明然後, 可以語人之疾病. 不然則如無目夜遊, 無足登涉也.”] 유완소의 이 말은 의사였던 寺島良安이 백과사전인 『和漢三才圖會』를 짓게 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10) 『莊子』 「逍遙遊」.

“是其塵垢糞穢, 將猶陶鑄堯舜者也, 孰肯以物爲事.”

11) 大槻玄澤, 상계서, 『薦錄考例』.

薦之與茗, 雖出于輓近, 其用則一也, 而和漢諸書, 精于茗者, 粗于薦者, 抑有以也. 蓋薦始生北海一小島, 其見于書, 亦自啞蘭, 則地之相遠, 書之不同文, 不可得而考也. 是以, 其行乎世, 既二百年, 未有一書, 能證歸之者也矣. ……泰時東來, 與先生驩, 屢入其社, 學啞蘭醫籍. 一日, 先生脉泰 『薦錄』, 且謀曰: “余也, 比年來, 講蘭書之餘, 拔擢物類, 產于彼而用于我者, 譯以著 『六物新志』 及此編. 『新志』 今已梓行, 近又有乞梓此編者, 顧奈之瑣瑣何?” 泰受而讀之, 其論不特啞蘭, 凡宇宙之間, 有涉于薦者, 遂稽博搜無遺, 勿論性味忌宜, 與品位美惡, 乃種蒔培育之方, 採摘暴乾之制, 暨其詩文器械圖會, 亦皆粲然備載矣. 於是乎, 蹶然興, 對曰: “有是哉! 古所謂立言不朽者, 小大何擇? 惟在益不如何耳! 固非後世輕俊之士, 華藻銜才, 空文無施之比也. 方今天下, 不有無薦之國, 則此編之有益於人, 豈瑣瑣哉? 借曰 『薦』 乎居恒所用, 吾固熟矣. 何筆書之爲?” 然, 本之則無如之何, 而此編也, 特其塵垢糞穢, 所陶鑄爾. 若夫術也學也, 有所造詣, 而繼述前賢, 啓迪後進, 則更嫉他日之選云.”

12) 대표적인 예로 陸羽의 『茶經』을 들 수 있다.

13)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白叙」, 國學資料院, 2002:15.

일본의 대표적 백과사전인 『和漢三才圖會』(倭漢三才圖會)의 서문에는 劉完素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 바다길을 통하여 인도를 거쳐, 필리핀을 지나 일본을 통하여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설

둘째, 육로로 비단길을 통해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설

셋째, 위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절충설

현재는 위 세 가지 가운데 1번에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담배가 유입된 시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金斗鐘이 “光海君 이전인 宣祖末頃이나 혹은 宣祖 25年 壬辰倭亂 때에 군졸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것으로 보았었지만,<sup>14)</sup>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다 光海君 때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光海君 때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그 시기가 광해군 때라는 정황을 주었던 것은 여러 기사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인데 그 기사들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1) 우리 나라 사람이 몰래 담배[南靈草]를 瀋陽에 들여보냈다가 청나라 장수에게 발각되어 크게 힐책을 당하였다. 담배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풀인데 그 잎이 큰 것은 7, 8寸 쯤 된다. 가늘게 썰어 대나무 통에 담거나 혹은 銀이나 주석으로 통을 만들어 담아서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데, 맛은 쓰고 맵다.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오래 피우면 가끔 肝의 기운을 손상시켜 눈을 어둡게 한다. 이 풀은 병진(1616년, 光海君 8)·정사년간부터 바다를 건너 들어와 피우는 자가 있었으나 많지 않았는데, 신유(1621년, 광해 13)·임술년 이래로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 손님을 대하면 번번이 茶와 술을 담배로 대신하기 때문에 혹은 煙茶라고 하고 혹은 煙酒라고도 하였고, 심지어는 종자를 받아서 서로 交易까지 하였다. 오래 피운 자가 유해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하여도 끝내 끊지 못하니, 세상에서 요망한 풀이라고 일컬었다. 심양으로 굴러 들어가자 심양 사람들도 또한 매우 좋아하였는데, 오랑캐 汗은 土産物이 아니라서 재물을 소모시킨다고 하

여 명령을 내려 엄금했다고 한다.<sup>15)</sup>

2) 南靈草 담배를 吸煙하는 법은 본래 日本에서 나왔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淡泊塊라고 하면서, 이 풀의 원산지가 南洋의 諸國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물건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위로 公卿으로부터 아래로 가마꾼과 초동 樵童牧豎에 이르기까지 피우지 않는 자가 없을 정도이다.<sup>16)</sup>

3) 淡婆姑는 풀 이름으로 南靈草라고도 한다. 근세에 일본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잎을 따서 포건하여 불을 붙여 피운다. 병든 사람이 대통으로 그 연기를 마시고서 조금 있다 뽀아내는데 그 연기가 콧구멍에서 나온다. 痰과 濕을 제거하여 下氣시키는 것에 가장 좋으며, 또 술을 깨게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심고 그 방법을 사용하니 효험이 매우 좋다. 그러나 독이 있으니 경솔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혹은 전하기를 南蠻國에 淡婆姑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러 해 동안 痰疾을 앓아 이 풀을 복용하고 나올 수 있었기에 그렇게 이름했다고 한다.<sup>17)</sup>

위의 ‘淡婆姑’라는 단어 『芝峯類說』에 처음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중일 3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훗날 일본인에 의해 「淡婆姑傳」이라는 假傳이 창작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담배의 유입경로와는 별개로 담배관련 문화가 일본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14) 金斗鐘,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278.  
“우리 나라에는 日本으로부터 처음 수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수입되게 된 연대에 관해서는 그 시기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光海初부터 우리 나라에 널리 전파된 것만은 확실하다.……그러므로 연초가 日本에 건너온지 얼마 되지 않는 光海君 이전인 宣祖末頃이나 혹은 宣祖 25年 壬辰倭亂 때에 군졸들과 함께 우리 나라에 전해졌고, 그것이 다시 滿洲에 전입되게 된 것으로 믿어진다.”

15) 『朝鮮王朝實錄』 「인조 16년 무인. 8월 4일(갑오).  
“甲午/我國人潛以南靈草, 入送瀋陽, 爲清將所覺, 大肆詰責. 南靈草, 日本國所產之草也, 其葉大者, 可七八寸許. 細截而盛之竹筒, 或以銀·錫作筒, 火以吸之, 味辛烈. 謂之治痰消食, 而久服往往傷肝氣, 令人目翳. 此草自丙辰·丁巳年間, 越海來, 人有服之者, 而不至於盛行, 辛酉·壬戌以來, 無人不吸, 對客輒代茶飲, 或謂之烟茶, 或謂之烟酒, 至種採相交易. 久服者知其有害無利, 欲罷而終不能焉, 世稱妖草. 轉入瀋陽, 瀋人亦甚嗜之, 而虜汗以爲非土產, 耗財貨, 下令大禁云.”

16) 張維, 『谿谷漫筆』 권1 「南靈草吸煙」.  
“南靈草吸煙之法, 本出日本. 日本人謂之淡泊塊, 言其草出自南洋諸國云. 我國自二十年前始有之, 今則上自公卿下至輿臺菴牧, 無不服之.”

17) 李睟光, 『芝峯類說』 권19 「食物部 藥」.  
“淡婆姑, 草名, 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 採葉暴乾, 以火蒸之. 病人用竹筒吸其煙, 旋即噴之, 其煙從鼻孔出. 最能祛痰濕下氣, 且能醒酒. 今人多種之, 用其法甚效. 然, 有毒不可輕試也. 或傳南蠻國, 有女人淡婆姑者, 患痰疾積年, 服此草得瘳故名.” 여기에서 “淡婆姑, 草名, 亦號南靈草. 近歲始出倭國. 或傳南蠻國, 有女人淡婆姑者, 患痰疾積年, 服此草得瘳故名.” 부분은 『鷲錄』 卷上 「原始第一」 에도 인용되어 있다.

‘南靈草’를 들 수 있겠다. 이 단어도 『芝峯類說』에 처음 보이는데, 南靈草라는 담배의 별명이 우리나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일본인이 이미 확인해준 바 있다.<sup>18)</sup> 한편, 『蔦錄』에는 담배가 임진왜란 이전부터 있었거나 적어도 임진왜란 때에는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남아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조선왕자 蔚海君의 「煙草」라는 시는 加藤清正의 軍營에서 지은 것이라고 하지만 출처를 알 수가 없으며, 桐江 滕子信이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던 것이다.[朝鮮王子蔚海君「煙草」之詩, 在於加藤清正軍營中所作云, 出處未詳, 桐江滕子信, 所臆記也.]

吐出自然氣	自然의 氣를 뿜어내니
徹天一樣雲	하늘에 닿은 구름과 같도다
終日愛無盡	종일토록 사랑하되 다함이 없으니
好是袖中君	좋구나! 바로 소매 속의 그대로고! <sup>19)</sup>

윗글에 보이는 조선왕자 ‘蔚海君’은 누구일까? ‘蔚海君’이 바로 ‘臨海君’의 오기라고 여겨진다. 임진왜란 때 蔚海君이라는 조선왕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加藤清正의 군영에 있었던 조선왕자는 1592년 임진왜란 때 함경도로 피란하였다가 順和君과 함께 會寧에서 倭將 加藤清正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났던 臨海君(1574-1609)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위의 시가 桐江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한다는 흠이 있지만, 위의 기사가 사실에 기반했다면 우리나라에 담배가 1592년 혹은 그 이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臨海君이 加藤清正의 포로가 되어서 담배를 피고서 위의 시를 지었다고 한다면 포로가 되기 이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정황은 없기 때문이다. 담배의 유입시기가 어떻게 되었건 문헌에 남아 있는 것에 한해서 보자면 우리나라 담배 관련 문학작품 가운데 위의 시가 최초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만, 위의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臨海君이 지은 시를 그대로 옮겨 놓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蔦錄』에는 우리나라 사람 李礪(1654-1675)과 일본인 入江若水(1671-1729) 간에 창화한 시가 남아있다. 李礪은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재주가 빼어나 製述官으로 통신사에 참여했던 인물로 3차례나 일본에 갔었

다.<sup>20)</sup> 오늘날 그는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일본에서 李東郭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入江若水是 名兼通, 字子徹, 號 櫟谷山人으로 일본에서 詩名이 있었던 인물이다.

1) 以金絲烟寄贈李東郭【朝鮮信使製述官 名礪 東郭其號】  
[李東郭에게 금사연을 드리다【이동곽은 조선통신사의 제술관으로, 名은 礪이며 東郭은 그의 號이다】] 入江若水

採取頭黃已去筋	頭黃를 따다가 이미 질긴 부분 없애고
割成金縷一何芬	썰어서 金絲烟 만들면 어찌 그리 향기로운고
面前乍起紛紛霧	얼굴 앞에 갑자기 이는 분분한 안개
舌罅徐生曳曳雲	혀 사이로 서서히 생기는 느릿느릿한 구름
非酒能消詩客恨	술이 아니지만 詩客의 한을 풀어줄 수 있고
代茶好敗睡魔軍	차를 대신하여 잠귀신을 잘도 물리쳐 주는구나
多情誰喚相思艸	다정스럽게도 누가 相思艸라 이름하였나
寄與征人把管薰	먼 길 온 분에게 드려 管을 잡고 피우게 하리라! <sup>21)</sup>

2) 次謝富田惠南艸[富田께서 南艸<sup>22)</sup>를 주심에 차운하여 사례하다]【朝鮮】李東郭

只取流津忌逆筋	오직 담배 맛만을 취하고 담뱃진을 꺼려하나니
剝來經縷却生芬	잘게 쓴 가벼운 刻草는 향기를 내도다
燃時愛吐霏霏霧	태울 때 폴폴 안개 토해내는 것 좋아하고
吸處如吞裊裊雲	마시는 곳 간들대는 구름 삼키는 듯 한 다네
偏合異鄉無夢客	오로지 타지에서 잠 못 이루는 객에게 적합하나
最宜寒夜踐更軍	추운 밤의 踐更卒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네
慇懃盛貺將何報	은근한 귀한 선물에 장차 무엇으로 보

20) 金得臣, 『柏谷集』附錄「記聞錄」.

“公門生中李礪【號東郭】最以文章鳴世 °以製述官 °三入日本 °其弟子卜相者四人 °”

21) 大槻玄澤, 상계서, 卷下「雅賞第十」.

22) 南艸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쓰이던 담배의 별칭이다.

18) 橘元勳, 『韓客筆談』,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橘元勳, 『仙槎筆譚』,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烟草, 或名南靈草乎? 華城之書不載此名, 貴邦之雅名乎!”

19) 大槻玄澤, 상계서, 卷下「雅賞第十」.

답할꼬

蘭室交情感襲薰 蘭室의 交情에 그옥한 향 스며드는  
듯<sup>23)</sup>

위의 두 시는 『薦錄』에서는 떨어져서 따로 수록되어 있으나 入江若水가 富田 사람인데다 두 시의 운이 동일하며 李磻이 담배를 받은 것을 사례하여 차운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入江若水가 당시 일본에서 문명을 떨쳤던 이현에게 담배를 선물하며 위의 시를 지어주자 이현이 이에 답하여 아래의 시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이처럼 담배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술이나 차를 대용하여 상호 교류의 운할유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담배 자체의 문학화는 그 아취를 드높이는 계기를 준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대는 술을 좋아하십니까?”

“시를 짓지 못하고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 일생이 가소롭지 않을지요?”

“그대를 보니 담배를 좋아하더군요. 저 또한 그러한데 식후에 더욱 좋습니다.”

“담배는 나 스스로 ‘천하의 큰 마실거리’ 라 부릅니다. 그대가 식후에 몹시 좋다고 말한 것을 알만 합니다. 그대 또한 그 妙處를 터득했군요.”

“담배는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배부른 자를 배고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담배 예찬’ 을 지을 수 있겠군요.”<sup>24)</sup>

인용한 글은 靑泉 申維翰(1681~?)이 제술관으로 조선통신사에 참여했을 때 京都의 醫士였던 飯田隆慶(寬齋는 그의 號)과 필담을 나눈 것의 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술, 담배, 담배관련 문학작품 등이 같이 언급되면서 담배의 효용 및 효능에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담배는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배부른 자를 배고프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동아시아의 의학문헌에 산견되는 구절로, 『薦

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煙經』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이는 17세기 후반이 되면 담배가 기호품을 넘어 약재로 까지 적극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숙종 대(1687년)에 지어진 『舟村新方』에 이미 담배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여기에는 담배의 효능 뿐 아니라 성질 및 담배를 써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언급되어 있어<sup>25)</sup> 17세기 후반이 되면 약재로서의 담배가 입상을 거쳐 의학계에 정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 III. 결 론

이상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담배관련 주요인용서로 거론되는 『薦錄』에 대한 대체적인 소개를 하고 및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기사를 소개하였다. 이 책에는 특히 『芝峯類說』의 기사가 반복되어 인용되어 있고 李磻의 문답이 남아 있어 한일 의학교류를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또한 臨海君의 시처럼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기 힘든 자료를 제공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이 시는 우리나라에 담배유입 시기가 적어도 임란 초기이며, 임란 이전 한일간 교류가 잦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임란 이전에 담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明나라 서적의 담배에 관한 기사가 아직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담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열어준다 하겠다.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면적을 염두에 둘 때, 필리핀(呂宋)으로부터의 유입이나 조선으로부터의 유입이 다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大槻玄澤이 무엇보다 실용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책을 저술하였으며 그가 의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卷中の 「主治」·「禁忌」·「解煙毒」 章이 주는 의료적인 실용성이 이 책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解煙毒」 章에 보이는 담배독을 푸는 방법에는 일본식 된장이 자주 언급되어 있어<sup>26)</sup> 우리나라 된장의 해독

23) 大槻玄澤, 상게서, 卷下 「雅賞第十」.

24) 『桑韓唱和填箋集』,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寫云 寬齋 “公好酒乎?”

寫云 靑泉 “不能詩, 不能酒, 一生可笑!”

寫云 寬齋 “見來公嗜烟, 僕亦然, 食後尤好.”

寫云 靑泉 “烟草則吾自謂天下大飲 君言食後最好云者, 可知 君亦得其妙處.”

寫云 寬齋 “烟草, 是飢能令飽, 飽能令飢.”

寫云 靑泉 “此言可作烟草贊.”

25) 申曼, 『舟村新方』 「藥性歌」,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煙草辛熱, 逐瘴治痰, 寒毒風濕, 殺蟲尤堪. 【性燥多火, 若氣虛多汗者, 不可用.】”

26) 大槻玄澤, 상게서, 卷中 「解煙毒」.

○震軒曰 砂糖檳榔 能解煙毒 世人未知焉 本邦人 若吸烟多服 眩暈頭痛惡心者 飲味噌汁 即愈 急卒無汁 則喫燒味噌 亦良矣 烟管爲烟脂所壅塞 亦用味噌汁 淋之 凝滯盡消去

○震軒曰 其脂汚衣 以味噌熱汁 滌之即淨 或噴昆布 取汁 揉洗之 亦良矣

○『和漢三才圖會』曰 凡人醉烟草者 喫味噌汁 解之 冷水亦可



작용에 관한 호기심도 유발시킨다. 이는 오늘날의 의료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담배의 효능, 담배를 약으로 쓰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담배독의 해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상세히 소개할 것을 약속한다.

#### IV. 참고문헌

1. 김영진, 「朝鮮後期の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양상」, 고려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3.
2. 李圭景, 古典刊行會 編, 『五洲衍文長箋散稿』, 1959.
3. 안대회, 「李鈺의 저술 『담배의 煙經』의 가치」, 『문헌과 해석』, 2003;24.
4. 宇賀田爲吉, 『煙草文化誌』, 東峰書房, 昭和56.
5. 大槻玄澤, 『蔦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2.
6. 富士川游 著, 朴晳·李相權 共譯, 『日本醫學史』, 法仁文化社, 2006.
7. 『莊子』.
8. 寺島良安 編, 『和漢三才圖會』, 국학자료원, 2002.
9. 金斗鐘,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10. 『朝鮮王朝實錄』.
11. 張維, 『谿谷漫筆』.
12. 李睟光, 『芝峯類說』, 乙酉文化社, 1975.
13. 橘元勳, 『韓客筆談』,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14. 橘元勳, 『仙槎筆譚』,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15. 金得臣, 『柏谷集』, 民族文化推進會, 1988.
16. 『桑韓唱和填箋集』,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17. 申曼, 『舟村新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

○『本朝食鑑』曰 烟草之黑脂 寒窳不通 則味嚼汁 鹽湯 能通之 本邦之人 常飲味嚼汁鹽湯 故膠脂 白不塞咽喉胃口也哉